

1. 정답 ③

제시문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내용으로 밑줄 친 왕은 '장수왕'이다. 장수왕은 475년 9월에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 왕 개로왕(부여경)을 죽였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위기를 느낀 신라와 백제는 433년(신라 눌지왕17, 백제 비유왕 7)에 우호관계를 맺어, 나제동맹이 성립되었다.

ㄱ. 백제 성왕의 업적으로 이 때는 고구려 문자왕의 집권기였다.

ㄴ. 장수왕 집권기에는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2. 정답 ④

난중일기는 2013년, 일성록은 2011년, 동의보감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3. 정답 ②

발해 무왕은 돌궐, 일본 등과 교류하며 당과 신라를 견제하였다.

4. 정답 ①

고려에서 유학을 중히 여기며,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준 왕은 광종이다. 한편으로 광종은 왕권 안정에 대한 집념이 매우 강렬해 호족세력은 물론 자신의 친인척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한번 의심이 가면 죽였다고 한다.

광종은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호족의 전횡을 막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② 성종, ③ 태조 왕건, ④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다.

5. 정답 ③

ㄱ. 석당은(石幢)은 돌을 기둥처럼 길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백률사 석당은 이차돈 순교비를 말한다. 법흥왕 14년(527)에 불교의 전파를 위하여 이차돈이 순교를 자청했을 때, 그의 목을 베자 흰 피가 솟았고, 잘린 목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바로 그 떨어진 곳이 지금의 백률사 자리였다고 한다. 이를 본 사람들이 슬퍼하여 다음해인 법흥왕 15년(528) 그 자리에 자추사(刺楸寺)를 건립했다. 이 절은 훗날 백률사(栢栗寺)로 이름이 바뀌었다. 헌덕왕 9년(817) 이차돈을 추모하여 석당(石幢), 즉 이차돈 순교비를 만들었다.

ㄴ.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법주사 대웅전과 팔상전 사이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으로, 사자를 조각한 석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성덕왕 19년(720)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6. 정답 ①

이원익은 광해군 집권기에 경기도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즉 ㉠은 '대동법'을 의미한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물 납부 방식이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었다.

② 균역법, ③ 영정법, ④ 세종 대의 공법(貢法)에 대한 설명이다.

7. 정답 ④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은 척신 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명종 때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림은 원칙에 더욱 철저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두 세력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성 사림을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되고, 신진 사림을 중심으로 동인이 형성되었다.

8. 정답 ③

원 간섭기에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는 등 사회 모순을 심화시킨 지배층은 ‘권문세족’이다. 신돈은 권문세족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인물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9. 정답 ④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설명이다.

①, ②, ③ 6조 직계제에 대한 설명이다.

10. 정답 ③

신유박해(1801)에 대한 설명이다.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사를 맡은 정순대비는 노론계통의 벽파와 합세해 남인과 시파, 즉 신서파를 몰아내고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천주교를 일절 금하고 오가작통법을 엄격히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천주교도를 색출해 처형했다. 이 사건으로 이가환, 권철신, 이승훈, 정약종 등 천주교도 수 백 명이 처형되거나 귀양을 갔으며 청나라 신부 주문모도 자수를 하여 참형을 당했다. 또한 이해 10월에 있었던 황사영의 백서사건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다.

① 신해박해(1791), ② 기해박해(1839), ④ 병인박해(1866)와 관련된 내용이다.

11. 정답 ①

“삼국유사”에 제시문과 같은 내용의 단군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②·③ “삼국사기”, ④ “해동고승전”에 대한 설명이다.

12. 정답 ②

“곽우록”에서 이익은 당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①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저술한 것은 사실이나, 백과사전적 성격을 갖는 책이라 보기 힘들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책으로 이익의 “성호사설”을 들 수 있다.

③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④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 다룬 역사책이다.

13. 정답 ②

㉠ 일본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 1905년 7월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한 설명이다.

㉡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사조약)에 대한 설명이다.

㉢ 1905년 8월 체결된 제2차 영일동맹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정답이다.

14. 정답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충청에서 결성했다는 말에서 밑줄 친 이 단체가 ‘한국 광복군’임을 알 수 있다.

③ 조선 의용군에 대한 설명이다.

15. 정답 ①

“대미관계 50년사”의 저자는 문일평이다. 문일평은 안재홍, 정인보 등과 함께 정약용 서거 99주년인 1934년에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였다.

② 이병도, ③ 백남운, ④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다.

16. 정답 ④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이 ‘산미증식계획’임을 알 수 있다.

④ 1949년 시행된 농지 개혁에 대한 설명이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여 1950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농지 개혁의 원칙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 한 가구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매수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가진 농지도 정부가 사들였다. 이 토지를 소작농에게 역시 3정보를 상한으로 분배하고, 매년 평균 생산량의 30%씩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게 하였다. 농지 개혁 결과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었고,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됨으로써 소작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7. 정답 ④

밑줄 친 그들은 ‘급진 개화파’로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 동학 농민 운동 당시 폐정 개혁안의 일부이다.

㉡ 갑신정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고종은 러시아와의 교섭을 시도하였다.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 영흥만을 조차해 주는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 교련단을 요구하는 교섭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18. 정답 ②

아관 파천으로 일본의 간섭이 잠시 약화되었지만, 조선은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무렵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이 1895년 말 귀국하였고, 이듬해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이 실패한 원인이 민중의 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서재필은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민중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같은 해에 개혁파 관료들과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

19. 정답 ②

제시문은 1946년 7월 김규식과 여운형의 주도로 구성된 ‘좌우 합작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좌우 합작 위원회는 다음 원칙을 발표하였다.

1.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 개혁에 있어 몰수, 조건부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줄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제안하여 입법 기구가 심리·결정하게 해 시행할 것.
6.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 적극 실행할 것.

③ 북한의 토지 개혁, ④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에 해당된다.

20. 정답 ②

제시문은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② 이 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③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야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에 확실시되었다.

④ 당시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이용하여 4·19 혁명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의 개입을 주장하였다.